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음 10월 10일) 제2408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승수 전주시장과 예술인 및 전주시민들은 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예술교육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예술교육도시 선포 퍼포먼스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상상으로 크는 예술교육도시 선포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2단지 야호예술놀이터 개관식

인적자원 발굴 · 전주형 교육 추진 · 공간 조성 힘쓰기로

문체부 공모 선정 폐산업시설 재생해 역동적으로 디자인

전주가 공부만 잘하는 교육도시보다는 놀이를 통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과 표현력, 상상력도 키워주는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시는 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규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총괄감독, 지역 예술가, 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팔복동 주민 등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예술공장 2단지로 조성된 팔복야호예술놀이터 개관식 및 전주예술교육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은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손수 만든 타이포아트를 활용해 '예술이 놀이가 되는 즐거운 삶'을 목표로 전주의 고유자원인 전통문화와 동시대 예술을 결합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예술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시는 예술로 시민들의 삶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예술교육과정을 준비하는 한편, 전주를 세계적인 예술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전주형 예술교육 추진 △예술교육 공간 조성과 운영체계 구축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팔복예술공장 2단지인 전주 꿈꾸는예술터 '팔복야호예술놀이터'의 개관을 알리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가 문화관광체육부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꿈꾸는 예술터' 공모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조성한 팔복야호예술놀이터는 팔복예술공장 1단지에 이어 폐산업시설을 재생한 공간으로, 벨기에의 '아트 베이직 포 칠드런'(Art Basics for Children), 호주 멜버른의 '아트플레이(ArtPlay)', 싱가포르의 '플레이움(Playeum)'처럼 광범위한 창의 활동을 담기 위해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디자인됐다.

시는 건축연면적 1592㎡와 예술놀이터 1736㎡ 등 규모 3328㎡, 지상 2층으로 들어선 이곳을 예술교육도시 전주의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시는 향후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교육환경과 교육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한편,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서학동예술마을 등 거점지역으로 예술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생활권 내 예술교육 네트워크 공간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예술교육도시 전주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4일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핀란드와 벨기에, 호주 등 3개국 예술교육 선진기관의 해외연사 3명을 초청해 외국 예술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예술은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예술교육은 개인의 잠재된 예술적 능력과 감성을 일깨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밑바탕이자 도시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며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간직한 전주는 이제 전통과 동시대 예술을 활용한 예술교육을 전주만이 가진 경쟁력으로 삼고, '꿈꾸는예술터'인 '팔복야호예술놀이터'를 중심으로 예술교육도시 다운 번영의 기억을 만들어 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2024년까지 22만대 전기차 단계적 생산"

지엠 군산공장 인수 명신, 계획 밝혀

2021년 5만대 위탁생산을 시작으로

2023년 자체모델 12만대 생산 포함

(주)명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으로 변환을 꾀하고 있다.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에 따르면, 명신은 2021년 5만대 위탁생산을 시작으로 2023년 플랫폼 라이센싱을 통한 자체모델을 개발해 12만대 생산, 2024년 고유플랫폼 및 상용차를 포함해 22만대 규모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명신은 현재까지 1530억원을 투자해 지엠군산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고 2024년까지 총 6180억원(자체 투자 및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투자 및 재무적 투자 활용), 1800명을 직접 고용(간접고용 포함시 1만2000명)할 계획이다.

나해수 주력산업과장은 "(주)명신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착근하고 지역 부품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취약한 전북경제 체질을 극복하고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전북 제조혁신 가속화… 도, 시범공장 구축 현장 견학

전주과학산단 3개 기업, 완주 투자 확대

아데카코리아 · 대주코레스

엘케이네스트코리아 등

전북도-완주군과 협약 체결

5일 완주군과 전북도는 군청에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아데카코리아(주), 대주코레스(주), (주)엘케이네스트코리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3개 기업이 완주군의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5일 완주군과 전북도는 군청에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아데카코리아(주)(대표 우에노야마 타카히사), 대주코레스(주)(대표 박주정), (주)엘케이네스트코리아(대표 이재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화학제품 제조 기업인 아데카코리아(주)는 300억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결정했다.

아데카코리아는 일본의 ㈜ADEKA가 100% 출자해 1991년, 완주군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인 반도체 재료의 제조기술의 성장과 품질향상을 이루어 왔다. 증설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나노유기화합물을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안정적인 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주코레스(주)는 100억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결정했다.

대주코레스는 알루미늄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1972년 창립이후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강화로 국내 자동차 및 화학업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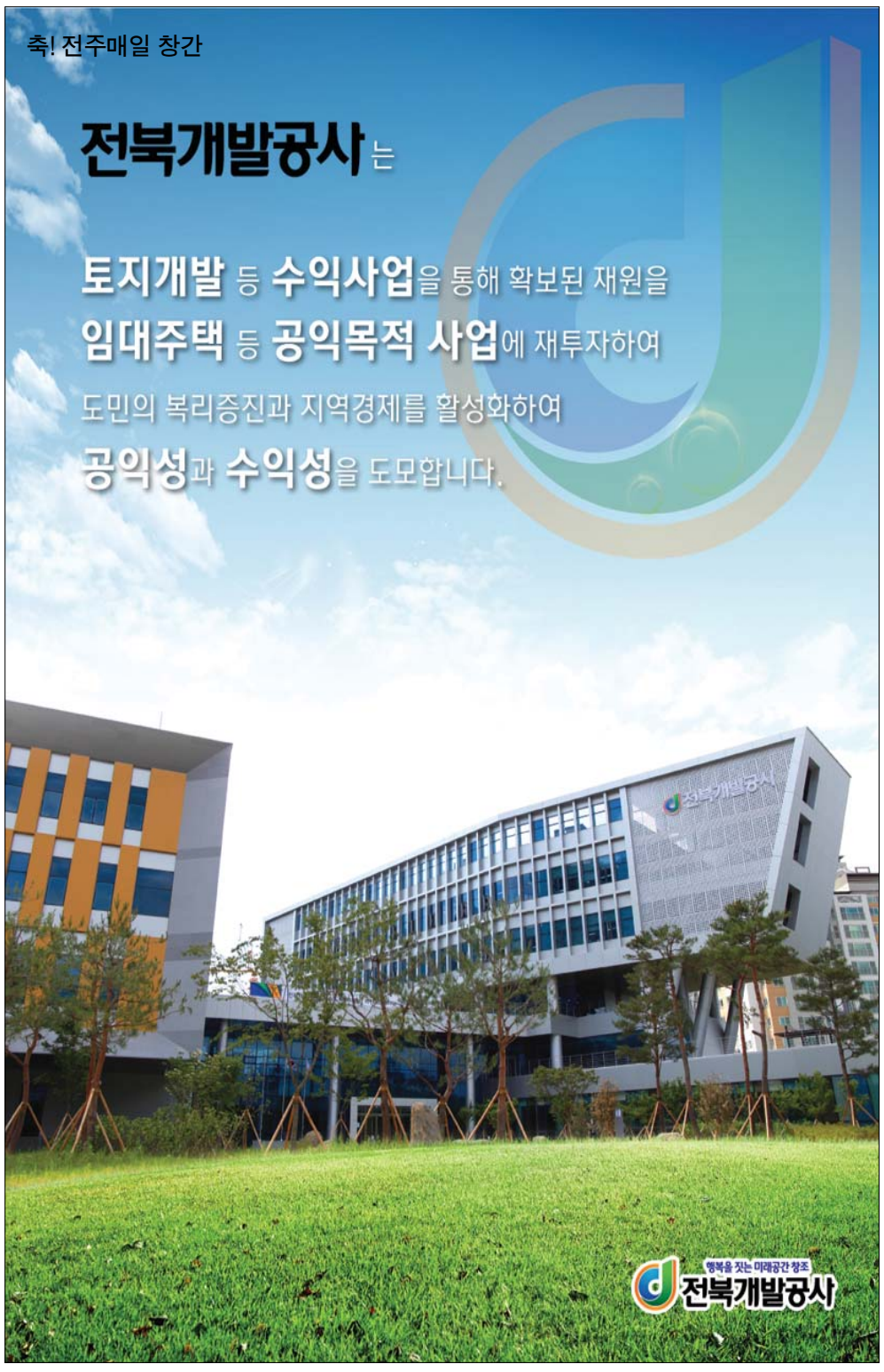
100억원 규모의 증설투자는 연간 32만대 규모의 신규 전기차 부품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배터리하우징 · 모노프레임 · 범퍼 등 신규 아이템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로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주)엘케이네스트코리아는 73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2019년 4월에 설립한 창업기업으로 기존 기업인 한양오토모티브를 인수해 토션빔, 아웃터튜브 등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신규투자로 국내 자동차 산업 변화에 발맞춘 프레스, 용접 기계 설비 및 생산공장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테두리 등 경량화 복합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철우 완주부군수는 "완주군에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대해 깊은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의 발전과 동일하기에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빠른 시일 내 공장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완주군이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 개발을 통해 성장 · 발전을 이루어 내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